

사회영역(생활과 윤리)

1

1

16년 9월 1번

그림의 토론 주제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토론 주제: 윤리학, 그 주요 탐구 과제는 무엇인가?

저는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의 본질은 어떤 원리가 도덕적 실천을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실천적 문제에 적용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① 갑: 다양한 문화권을 탐방하여 각국의 실천적 관습을 조사해야 한다.
- ② 갑: '옳다', '유덕하다' 같은 도덕적 술어의 의미를 검증해야 한다.
- ③ 을: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야 한다.
- ④ 을: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 ⑤ 갑, 을: 의무, 공리, 덕성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해야 한다.

2

16년 9월 2번

(가), (나)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덕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나이 칠십에 아이처럼 장난하며 색동옷을 입고, 물을 떠 당(堂)에 오르다가 일부러 넘어져 아이 울음소리를 내었으며, 부모 곁에서 새끼 새랑 놀며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였다.
(나) 과실(過失)이 있으면 기(氣)를 내리고 낮빛을 온화하게 하고 음성을 가다듬어 간(諫)한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면 공경심을 일으키고, 기뻐하지 않으면 다시 간한다.

- ① 동기간(同氣間)에 서로 이롭게 하며 허물을 바로잡는 것이다.
- ② 양지(養志)의 마음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실천하는 것이다.
- ③ 친애와 경쟁을 바탕으로 권면하여 믿음[信]을 실천하는 것이다.
- ④ 수평적 관계에서 구휼(救恤)의 의무를 부과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 ⑤ 음양(陰陽)의 이치에 따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3

17년 9월 3번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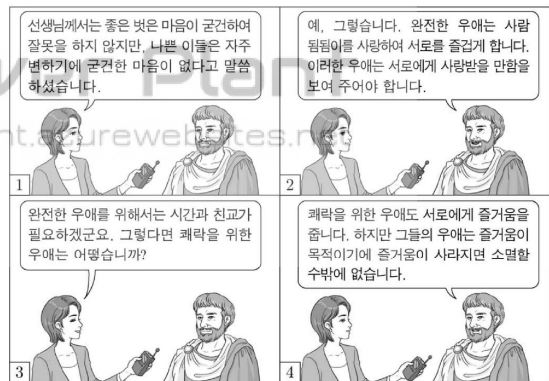
오늘날 시민들은 공적 장소에서 토론할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적 토론이 시민들에게 권장되지도 않는다. 시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없으면 건장한 민주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과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시민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대화에 참가하고, 그 토론의 결과가 법체계에 반영된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토론의 절차가 아니라 토론의 결과만을 중시해야 한다.
- ②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 ③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 법에 대해 다시 토론해서는 안 된다.
- ④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적 토론을 권장할 필요는 없다.
- 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토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4

18년 9월 4번

다음 가상 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쾌락을 위한 우애나 완전한 우애 모두 서로에게 즐거움을 준다.
- ② 유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우애를 나눌 수 없다.
- ③ 좋은 벗은 서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④ 쾌락을 위한 우애는 서로 즐거움을 주는 한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 ⑤ 완전한 우애만이 서로의 선한 성품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2

사회영역(생활과 윤리)

5

17년 9월 5번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려는 본성을 가진다. 신이 정한 결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본성은 실현된다. 성(性)은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가 된다.

을: 성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성이라면 도덕적이다. 사랑은 성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 ① 갑: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만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
- ② 갑: 성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인류를 존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 ③ 을: 성은 사랑을 통해 인격적 만남의 차원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 ④ 을: 성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갑, 을: 성은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도덕적이다.

6

17년 9월 6번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교육 환경 같은 우연적 요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 환경이 불리한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 일정한 대학 입학 정원을 할당하는 대학 입학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을: 대학 입학 제도는 모두에게 형식적으로 동등한 지원 기회만 주어진다면 정당하다. 입학 전형에서 교육 환경의 차이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입학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 입학 할당제는 부당하다.

병: 개인의 학업 능력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입학 전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학 입학 할당제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 입학 할당제는 필요하다.

- ① 갑: 교육 환경 같은 우연적 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은 부당하다.
- ② 을: 대학 입학 할당제는 누구의 입학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병: 성적 우수자가 할당제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④ 갑, 을: 대학 입학 전형에서 교육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면 안 된다.
- ⑤ 을, 병: 오직 학업 능력만을 대학 입학 전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7

16년 9월 7번

다음 현대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A국에 대한 무장 해제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목표이지만, A국의 대외적 위협은 전쟁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로 제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한 이상, A국과의 전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정당하다. 첫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민간인 사상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A국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수립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전쟁의 정당성 논의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가?
- ② 무조건적, 무제한적 전쟁은 도덕적 정당화가 불가능한가?
- ③ 전쟁의 정당성 논의는 전쟁이 끝남으로써 종식되어야 하는가?
- ④ 자결주의에 입각한 내정 불간섭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는가?
- ⑤ 개전 명분과 상관없이 전쟁 중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8

16년 9월 8번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개인의 타고난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불 배 임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을: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불평등하다는 점, 따라서 생산 능력도 타고난 특권임을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산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배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병: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 ① 갑: 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배제된다.
- ② 을: 노동분업은 소외된 노동을 해방시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한다.
- ③ 병: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이다.
- ④ 갑, 병: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여야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 ⑤ 을, 병: 사적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승인될 수 없다.

9

17년 9월 9번

(가)의 사상이 감,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감: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법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낀다면 인간에게는 더 많은 농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
 을: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각자의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병: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심미적 관점으로도 살펴봐야 한다.

(나)

<보기>

- ㄱ. A: 인간은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도 되는가?
- ㄴ. B: 생명 없는 개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불필요한가?
- ㄷ. C: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하는가?
- ㄹ. D: 토양이 아닌 물[水]은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③ ㄷ, ㄹ

10

18년 9월 10번

(가)의 감,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감: 형벌은 위법 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에, 살인범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것은 정의가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을: 형벌과 보상으로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이 정부의 직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형벌의 가치는 어떤 경우든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나)

<보기>

- ㄱ. A: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더라도 정당화 가능한가?
- ㄴ. B: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는 것인가?
- ㄷ. C: 형벌은 공리를 증진하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는 선인가?
- ㄹ. C: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려는 수단이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사회영역(생활과 윤리)

11

17년 9월 11번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정의는 본성상 정치적 동물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정의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유용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한다.</p> <p>병: 정의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보기>

ㄱ. A: 분배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ㄴ. B: 분배의 옳고 그름은 쾌락과 고통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
 ㄷ. C: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ㄹ. D: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 정의는 실현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16년 9월 12번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기본적 권리는 문화라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간 문화적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 관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소수집단의 성원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 경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여 집단 간 문화의 장벽을 영속시킬 뿐 아니라, 소수집단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여 개인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집단 간 문화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됨을 강조하고 있다
 ② 문화보다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다문화주의가 법 적용의 일반성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차별화된 권리의 인정이 보편적 인권과 여극남을 간과하고 있다
 ⑤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13

16년 9월 13번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만민들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서 일단 원조의 의무가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을: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넘쳐 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 ① 갑: 모든 국가의 복지 및 부의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② 갑: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③ 을: 사회 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④ 을: 원조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빈곤자들에게 대한 관심의 실천이다.
 ⑤ 갑, 을: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

14

16년 9월 14번

(가)의 사상이 감,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감: 형벌의 주목적은 범죄자와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p> <p>을: 형벌은 단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과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득적 인격성은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아도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보호한다.</p>
(나)	

<보기>

- ㄱ. A: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하는가?
- ㄴ. B: 형벌은 일반인에게 본보기로, 범죄자에게 교화로 작용하는가?
- ㄷ. C: 형벌의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가?
- ㄹ. C: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16년 9월 15번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과거보다 교묘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중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대중 예술에 투자된 세계는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는 기만적 대리 만족이다. 문화 산업은 대중을 통제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한다. 개인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경제적·사회적 장치의 산물이다. 문화 산업이 독점한 대중 예술은 개인의 특성을 획일화하여 자신의 논리를 관철한다.

<보기>

- ㄱ. 대중 예술품의 주된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 ㄴ. 대중 예술의 영역과 권력의 영역은 상호 무관하게 작동한다.
- ㄷ. 대중 예술은 현실적 모순을 은폐하고 대중 의식을 조작한다.
- ㄹ. 대중 예술의 감상은 획일화되지 않은 개인의 고유한 체험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17년 9월 16번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물음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전통 윤리학과 달리 새로운 윤리학은 미리 사유된 위험 그 자체가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상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전 지구적 차원의 위험, 인류 몰락의 징조 등을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부른다.</p>
(나)	<p>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과학 기술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p>

- 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만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생태계 전체를 예방적 책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연구의 위험이 확실할 때에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세대 간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
- ⑤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과학적 연구 성과를 더 중시해야 한다.

20

17년 9월 20번

다음 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상 대담>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관용은 문화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타인의 불의한 행위에 무관심하거나 도덕적 악을 참는 것은 관용이 아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의 자유권, 생명권과 같은 권리에 대한 침해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

<가상 대담>

전문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리포터: 그렇다면 이런 문화도 관용의 대상이 되나요? 외국에서 이민을 온 어떤 가족은 여자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어린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딸이 성인이 되어 외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전문가: 그런 문화는 ㉠

- ① 부모의 고유한 권리를 존중한 것이므로 용인해야 합니다.
- ② 자녀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 ③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니므로 고유한 문화로 용인해야 합니다.
- ④ 종교의 계율과 전통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므로 용인해야 합니다.
- ⑤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감을 저해하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Math Power Plant
<https://mathpowerplant.azurewebsites.net>